

수도권서 출퇴근족 많아 '반쪽 행복' 경쟁력 못갖추면 '빛가람'도 빛 잃어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12)

공동혁신도시 ③ 세종 '행복도시'는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와 행복도시의 성격, 형태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인 두 도시 모두 광주와 대전이라는 배후 광역시를 가지고 있으며, 나주시와 세종시 내에 자리하고 있다.

빛가람 도시는 인구 5만명 목표로 면적 733만4000㎡, 행복도시는 인구 50만명에 면적은 7291만㎡다. 행복도시를 10분의 1로 축소하면 빛가람 도시라는 것이다.

행복도시가 빛가람과 다른 점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 세종시 자체가 '특별자치시'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 규모가 커 2030년까지 단계별로 조성된다는 점, 개발 주체가 정부가 조향돼 있다는 점 등이다.

◇22조5000억원 투입되는 행정중심도시=행복도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구·공공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가 8조5000억원, LH가 14조원을 투자하는 '매머드급' 도시다. 2015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부처 및 기관 이전, 도시기반 집중 개발로 15만명이, 2020년까지 3조5000억원을 들여 도시 자족기능 구축 등으로 30만명이, 마지막 3단계로 2조원을 투입해 자생적 성장에 가능한 50만명이 거주하는 '3단계' 계획에 의해 개발이 한창이다.

◇초고층 아파트들의 지나친 배치

빛가람도시 10배 확대판 행정수도 논란 조성 지연 정주여건·교통·교육 등 차별화 전략 마련에 고심

가 도시 전반을 삭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 도시발전정책과 이광민 사무관은 "행정복합도시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수장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공모로 선정된 민간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다"며 "다른 건설업체를 유인하면서 좋은 조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속철도나 광역도로를 행복도시와 가깝게 뒀 수도권이나 대전 등지와와의 소통을 편리하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교통여건이 나아질수록 '정주'보다는 '출퇴근'에 무게를 두는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0~40대의 경우 투자 가치, 40~50대는 교육여건, 60대 이상은 편의성과 쾌적성을 추구하는 등 세대별로 각기 다르게 느끼는 도시의 매력을 단기간에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교육여건 높이고 도시 특징 살려야=건설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교육여건이다. 유·초·중·고 등 세종시의 162개 학교(현재 14개 개교)를 모두 정보통신기기로만 수업하고 배우는 '스마트 스쿨'로 만들 방침이

행복도시	빛가람도시
배후도시	대전광역시
목표인구	50만
면적	7291만㎡
사업비	22조 5000억원
이전기관	정부 17개 부처

다. 정주를 가장 망설이는 부처 및 기관의 30~50대에게 수도권·대전보다 뛰어난 교육시스템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첫 졸업생을 내는 고3의 대학 입시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가 좋을 경우 정주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 위주의 '분양'만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임대'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가수요'를 '실수요'로 바꾸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현재 도시건설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도시계획 리뷰 용역'을 발주했다.

건설청 한 관계자는 "정주 및 교육여건으로 수도권 등과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을 계속 키우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빛가람도시 역시 광주시, 그리고 다른 혁신도시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이 DJ"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밀랍인형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DJ 고향서 지방자치 7대 약속

3대 비전 제시도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3일 목포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체를 위한 7가지 국민 대약속을 발표했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목포 신한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미래 통합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3대 비전과 국민과의 7대 약속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약속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약속을 했다. 예산주민총회를 꾸려 자치예산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투표 대상 제한을 해제해 재정이나 인사,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사안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민투표 성립요건도 지역주민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을 제정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정 책임도를 높이고, 지방재정 파산법을 제정해 지자체 부채 문제가 심각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채 방지를

위해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차감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주민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를 독립시키기로 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새 정치의 시작은 7대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새 정치의 핵심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장애인 복지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 문제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문제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문제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21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는 행복도시 내 가장 먼저 주민들이 입주한 첫마을. 전국 각지의 신도시 일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 대도시와 비교해 어떤 도시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행복도시와 빛가람도시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신당이 지지자 명의 무단 도용"

일부 전 지방의원들 반발

지난 22일 광주·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113명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 데 대해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식 전 광주시의원은 23일 "현직 도시의원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무턱대고 '도와달라'해 '그렇게 하세'라고 했는데 내 이름이 안철수 신당 지지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당원인 김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때 민주당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라며 "앞으로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전 광주 동구의원도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내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내 이름을 무단으로 올린 모

의의원에 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경도 전 광주 서구의원도 "내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 것처럼 알려줬더니 이름이 도용당한 것"이라며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지지선언을 했다는 113인 중 5명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철수 지지 세력의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병원 (담양공관 상일로 입구) : 022276-0587-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옆) : 023477-5110 종로2점 (공관제약 옆) : 021733-0220 송파점 (선릉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 (구.시민회관 옆) : 029421-2288 부평점 (부평역 옆) : 032517-5110 수원점 (남문 옆) : 031821-6655 안양점 (백산소방2001 어울림 옆) : 031469-0110-1 평택점 (평택역 옆) : 031658-5110 용인점 (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 (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 (롯데백화점 옆) : 032329-4400 남양주점 (평내 호평역 옆) : 031593-9803 부산점 (서면역 옆) : 051818-8800 서면점 (서면역 옆) : 051266-7200 울산점 (공평백화점 옆) :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옆) : 055297-6000 진주점 (중앙백화점 옆) : 055745-9870 대구 동원점 (동원네거리) : 053425-4440 삼척점 (삼척네거리) : 053426-1511 남양평점 (아카데미극장 옆) : 053425-7575 경북 포항점 (옥거리) : 054244-5110 안동점 (구.안동농고네거리) : 054859-2248 광주 광주점 (금남로 47번 사거리) : 062225-5110 광주점 (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시 (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점 (신복로터) : 063252-5728 군산점 (구.서창문 옆) : 063446-0198 익산점 (북부시청네거리) : 063838-5600 남원점 (시청네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 (도청 옆) : 042254-5110 대전점 (충훈로터) :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옆) : 042255-48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옆) : 041553-2888 광주점 (공주순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 (현.개포로 구.속리산 고속 및천) : 043222-1177-8 충주점 (삼평로터) : 043852-1414 강원 강릉점 (죽전오거리) : 033647-0588 춘천점 (현호광장 옆) : 033253-5110 제주 제주점 (영랑로터) : 06417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인증 국제품질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0120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C인증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